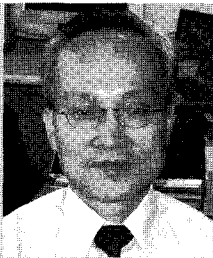


고품질 생산 업계 발전 도모 제품 차별화 통해 성장 거듭



김 경 환
하니웰코리아(주) 대표이사

원자재값 폭등, 폐기물 부담금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 현재 포장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2004년을 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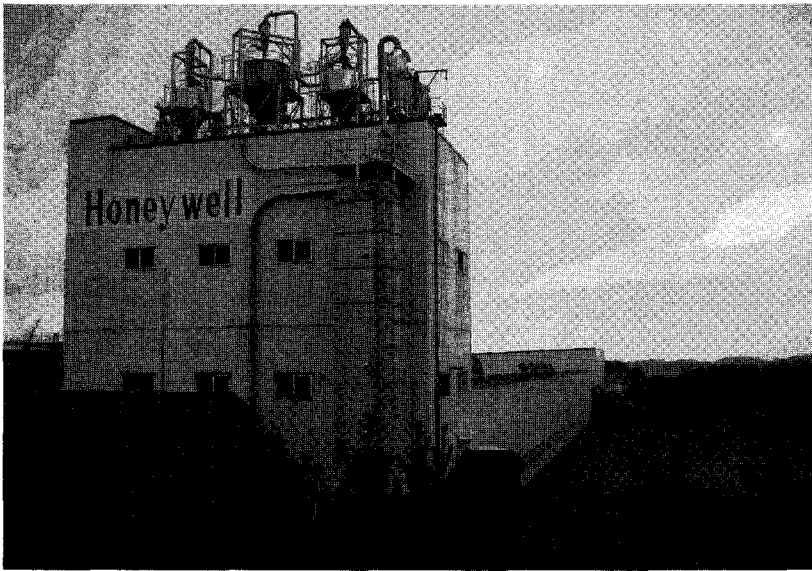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속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필름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하니웰코리아(주)(대표이사 김경환)를 찾았다.

아시아 지역내 새로운 지사 설립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아래 하니웰 그룹은 지난해 5월 당진에 위치한 코오롱 공장 지사를 인수하면서 국내에서 나일론 필름 사업을 개시했다.

고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하니웰코리아라는 상호아래



▲ 하니웰코리아(주) 생산제품



◀ 충남 당진에 위치한 하니웰 코리아(주) 공장

고품질 생산을 기반으로 올해 국내 나일론 필름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발전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하니웰코리아(주)는 현재 영업본부 및 고객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사무소와 생산 및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 당진 공장에 약 76여명의 임직원이 나일론 필름을 생산하며 초고속 성장을 거두고 있다.

특히 하니웰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순차 이축연신에 의한 나일론 필름을 지난 1998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하니웰코리아가 생산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2~3개

업체만이 T 다이법에 의한 순차 이축연신 나일론 필름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하고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시판되는 여러 가지 필름 중 나일론 필름은 인장강도, 인열강도, 충격강도 등에서 최상위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내마모성, 내절성이 뛰어나고 돌기물과 접촉하여도 핀홀(Pin hole)이 잘 생기지 않아 타 필름에 비해 가스 차단성이 양호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진공포장이 필요한 식품포장 특히 냉동, 냉장 식품에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

많이 생산되는 간편식품(즉석밥 등 즉석식품), 리필용 세제나 샴푸 등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특히 하니웰코리아가 생산하는 T 다이법에 의한 순차 이축연신 필름은 써클 다이법에 의한 동시 이축연신 필름보다 인장강도, 충격강도, 투명성, 두께편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물성을 가진다.

하니웰코리아는 다양한 두께의 나일론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 인 용도인 15 마이크로 필름,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25

Honeywell Korea

마이크로 필름, 풍선 등 가벼운 용도에 사용되는 12 마이크로 필름, 최근에 그 용도가 다양화되고 있는 8, 10 마이크로 등 다양한 두께의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8 마이크로 필름의 경우 극박 필름에 해당하는 필름으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하니웰코리아의 높은 기술

력을 바탕으로 개발에 성공, 최상의 고객 만족을 꾀하고 있다.

하니웰코리아는 '신뢰, 정직, 커뮤니케이션'의 세가지를 모토로 건강, 안정, 환경을 중요시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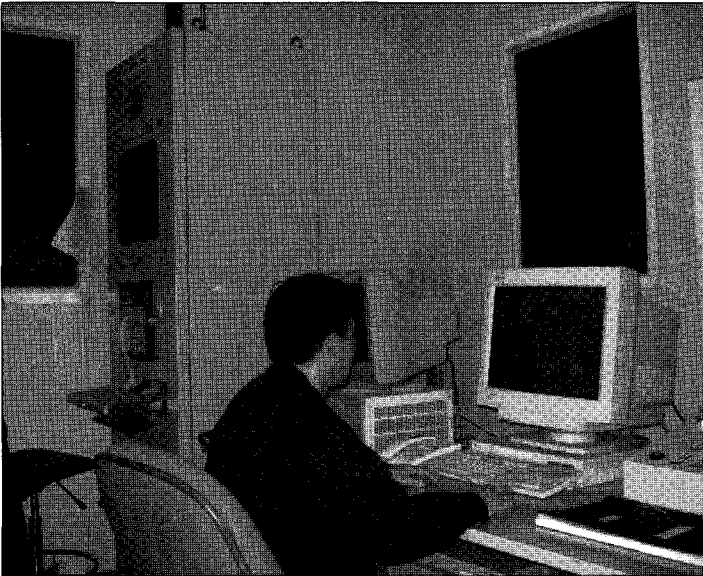
“고용인들간의 신뢰는 기업

이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직하게 경영하는 것은 안팎의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또한 하니웰은 노사간의 협력적인 대화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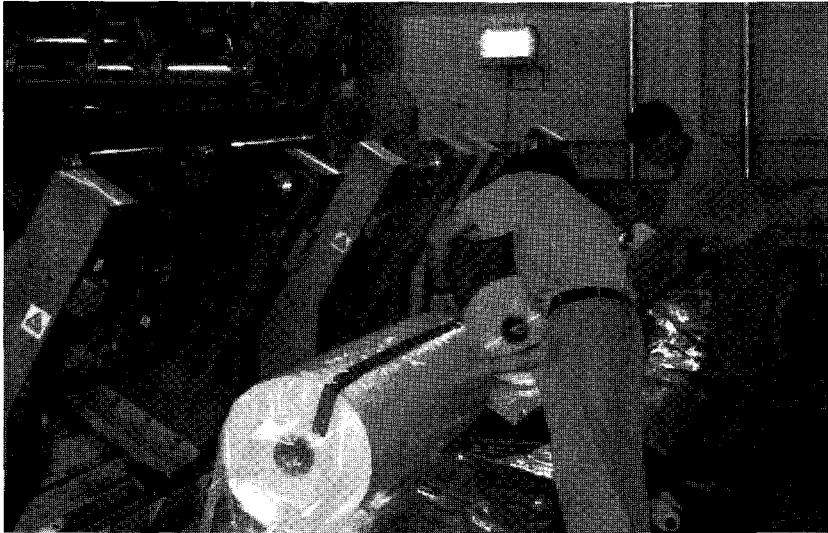
김경환 사장은 “하니웰 그룹의 우산속에서 풍부한 자본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제품 차별화 및 최대 물량을 통해 내수는 물론 아시아, 유럽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자재 폭등으로 필름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하니웰코리아는 타 경쟁업체들보다 원료공급면에서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리 이유상 하니웰그룹에서 원료를 직접 공급받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제품 서비스



▲ 하니웰코리아 직원들은 고품질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하니웰코리아(주)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

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품질과 가격면에서 타업체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김 사장은 “나일론 필름 사업을 시작한지 1년반만에 원자재값 상승으로 다른 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인 하니웰그룹에 속해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위기를 기회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소비자 요구에 한발 더 일찍 부흥하기 위해 하니웰코리아는 지난 9월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으로 가입했다.

포장업계 일익을 담당하고 회원사들간의 정보를 통해 업

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김 사장은 “포장업계를 대변하는 (사)한국포장협회가 원자재 가격 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기술지도 사업을 실천하고 업계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업계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포장산업은 그 시장이 무궁무진하여 국내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이며 특히 나일론 필름은 차세

대 필름 용도로 발전하여 향후 국내 포장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국 필름 시장에 맞설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일론 필름에 대한 정확한 용도와 장점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김 사장은 자신있게 말했다.

앞으로 하니웰코리아는 가치 있는 제품생산을 통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실용적 마케팅전략으로 국내 필름 시장에 적합한 기업모델로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

이한얼 기자